

한국 여성노인 현황

- 여성노인 빈곤율 47.2%, OECD 회원국 중 최고

기획·작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재선 성 인지 통계패널센터 연구위원(02-3156-719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건표 성 인지 통계·패널센터 연구원
홍 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 황애리(02- 3156- 729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 여성노인 현황 요약

- 경제활동과 빈곤, 그리고 여가

□ 여성인구의 고령화와 경제활동

○ 2010년 노령화 지수 69.7%, 노년부양비 15.6%

- ※ 2010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여성 13.4%, 남성 9.2%.
- ※ 노령화지수는 2000년 35.0%에서 2010년 69.7%로 2배 증가.

<표 1>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단위 : 1,000명, %, %p)

연도	여성 노인인구	남성 노인인구	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
2000	2,084(9.1)	1,287(5.6)	35.0	10.2
2010	3,227(13.4)	2,197(9.2)	69.7	15.6
2010-2000 증가	1,143	910	34.7	5.4

○ 2010년 60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6.9%

- ※ 60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1,162천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39천명 증가.
- ※ 60세 이상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655천명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은 50.3%.
- ※ 2010년 여성 노인 취업자 1,135천명, 2003년 이후 증가(<그림 1> 참조).

<표 2>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단위 : 1,000명, %, %p)

성별	2000		2010		지난 10년 간 증감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923	30.2	1,162	26.9	239	-3.3
남성	1,070	49.7	1,655	50.3	585	0.6

□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노후준비 방법(<표 3> 참조)

○ 60세 이상 여성노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문제'

※ 2009년 60세 이상 여성노인이 겪는 어려움은 '건강문제' 70.9%, '경제적인 어려움' 61.3%, '외로움, 소외감' 19.8%, '소일거리 없음' 14.5% 순임.

○ 여성노인의 노후준비 비율 37.1%(<표 4> 참조)

※ 여성의 노후준비방법은 예금·적금, 저축성 보험 55.7%, 국민연금 34.9%, 사적연금 25.5%, 부동산운용 20.9% 순.

※ 60세 이상 남성인구는 59.4%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음. 노후준비방법은 저축성 보험 49.1%, 국민연금 47.8% 순.

□ 연금 수령 경험과 국민연금

○ 55세 이상 여성 중 42.4%가 연금 수령 경험자(<표 5> 참조)

※ 연령별로 55~59세 여성 6.2%, 60~64세 여성 25.6%, 65~69세 여성 63.6%, 70~74세 여성 72.9%, 75~79세 여성 77.7%가 연금 수령 경험자.

※ 55세 이상 남성 중 연금 수령자 52.6%.

○ 2010년 여성의 연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2,168천원으로 남성의 64.4% 수준(<표 6> 참조)

※ 2010년 국민연금 여성 수급자 1,198천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40% 차지.

※ 2010년 여성 수급자의 연평균 수급액은 2,168천원.

※ 남성의 경우 연평균 수급액은 3,365천원이며, 수급자는 1,794천명.

○ 한국여성의 연평균 연금수급액, OECD 회원국 중 24위(<표 7> 참조)

※ 한국 여성의 기대되는 연금수급 총 년수는 25.2년.

※ 한국여성 연금의 연평균 추정수급액은 11,131US\$로 추정.

□ 노인인구의 빈곤율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여성 빈곤율은 47.2%로, OECD 회원국 중 최고(<표 8> 참조)

- ※ OECD 회원국 여성노인의 빈곤율 평균(15.2%)에 비해 32.0%p 높은 수준.
- ※ 한국 전체인구 중 빈곤자의 비율은 14.6%. 1인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76.6%.
- ※ 한국 노인 남성의 빈곤율은 41.8%.
- ※ 한국 노인의 성별 빈곤율 차이는 5.4%p.

- 한국, 여성노인의 연금수급액은 낮고, 여성 빈곤율은 높은 국가(<그림 4> 참조)
 - ※ 한국 여성노인은 멕시코, 일본, 미국, 포르투갈, 그리스, 호주와 더불어 OECD 회원국 중 연간 연금수급액은 낮고, 빈곤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
 - ※ 반면 OECD 회원국 중 연간 연금수급액이 높으면서 빈곤율이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 노인인구의 여가

-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여가시간이 전체 인구 중 가장 길어(<표 9> 참조)
 - ※ 60세 이상 노인의 여가 및 교제활동 시간은 6시간 26분, 여성 노인은 6시간 01분, 남성 노인은 7시간 00분.
 - ※ 60세 이상 여성 노인의 여가 및 교제활동 시간은 남성 노인에 비해 59분 적어 가장 큰 차이.
- 미디어 이용, 교제활동,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 보내
 - ※ 미디어 이용 시간 3시간 26분, 교제활동 54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47분.
 - ※ 남성은 미디어 이용,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순.
 - ※ 여성은 미디어 이용, 교제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순.
 -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미디어 이용,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시간 많아.
-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시간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크게 늘어(<표 10> 참조)
 - ※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시간 1999년 32분, 2009년 47분, 15분 늘어.
 - ※ 60세 이상 남성 노인의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시간 1999년 45분, 2009년 1시간 05분으로 20분 늘어.

한국 여성노인 현황

- 경제활동과 빈곤, 그리고 여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재선 연구위원, 박건표 연구원

이 리포트는 여성노인인구의 경제활동과 빈곤, 그리고 여가에 대해 최근 통계를 간략히 분석하고 있음. 노인인구는 자료원에 따라 55~7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정의되어 분석되었음.

□ 여성노인 인구와 경제활동

○ 2010년 노령화 지수 69.7%, 노년부양비 15.6%

- 여성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 9.1%에서 2010년 13.4%로 4.3%p 상승하고, 남성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동기간 3.6%p 상승함.
- 이에 노령화지수¹⁾는 2000년 35.0%에서 2010년 69.7%로 2배가량 높아짐.
-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돌봐야 하는 65세 인구의 비율(노년부양비)은 1980년 6.2%에서 5년 주기로 상승하여 2000년 10%를 넘겼으며, 2010년 15.6%로 상승세가 더욱 커지고 있음.

<표 3>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 추이

(단위 : 1,000명, %, %p)

연도	여성 노인인구	남성 노인인구	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
1980	907(4.9)	539(2.9)	11.4	6.2
1985	1,097(5.4)	652(3.2)	14.5	6.6
1990	1,352(6.3)	811(3.7)	19.4	7.2
1995	1,666(7.5)	975(4.4)	25.8	8.3
2000	2,084(9.1)	1,287(5.6)	35.0	10.2
2005	2,629(11.2)	1,736(7.4)	48.6	13.0
2010	3,227(13.4)	2,197(9.2)	69.7	15.6
2010-2000 증가	1,143	910	34.7	5.4

주 : () 전체 인구 중 65세 노인인구 비율.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 「2010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재편집.

1) 14세 이하 유년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백분비

○ 2010년 60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6.9%

- 60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1,162천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39천명 증가함. 하지만 노인인구의 증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26.9%로 동기간 3.3%p 하락함.
- ※ 반면 2010년 60세 이상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655천명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은 50.3%로 10년 전에 비해 0.6%p 상승함.
- 60세 이상 여성 실업자는 노인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요구가 강해지면서, 2000년 7천명에서 2010년 27천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0천명 증가함.

<표 4>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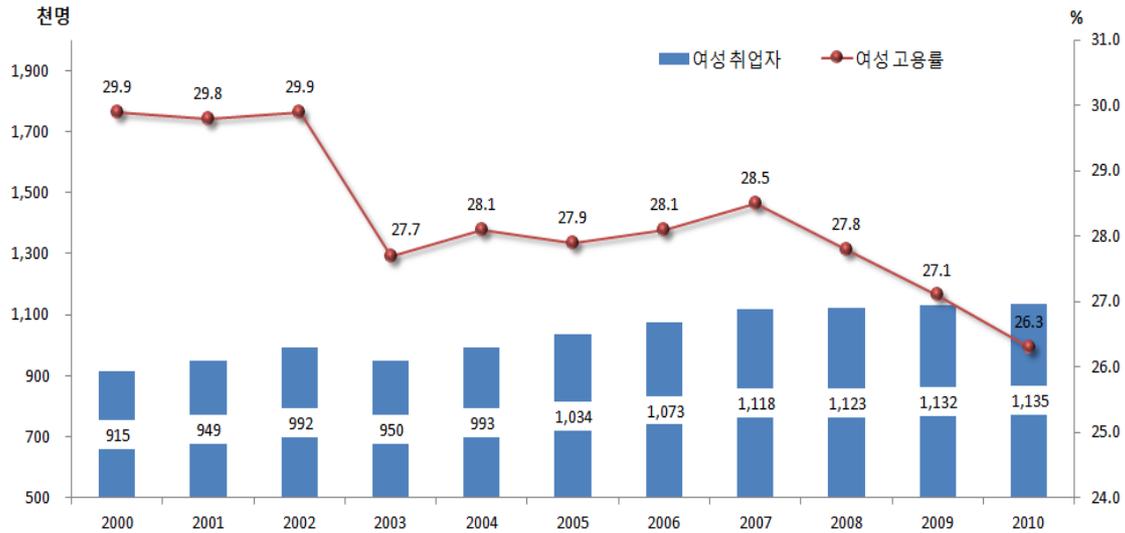
(단위 : 1,000명, %, %p)

연도	성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고용률
2000	여성	923	2,138	30.2	915	7	0.8	29.9
	남성	1,070	1,082	49.7	1,048	22	2.1	48.7
2010	여성	1,162	3,161	26.9	1,135	27	2.3	26.3
	남성	1,655	1,633	50.3	1,602	53	3.2	48.7
지난 10년간 증감	여성	239	1,023	-3.3	220	20	1.5	-3.6
	남성	585	551	0.6	554	31	1.1	0.0

자료 : 통계청, KOSIS DB.

○ 2010년 여성 노인 취업자 1,135천명, 2003년 이후 증가 추이

-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는 1,135천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20천명 증가함. 하지만 고용률은 동기간 3.6%p 하락함.
-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의 증감추이를 보면, 2000년 915천명에서 2002년 992천명으로 증가하다가 2003년 950천명으로 크게 감소함. 이후 다시 점차 증가하여, 2010년 1,135천명으로 증가함.
- 여성 고용률은 2000년에서 2002년은 29.9% 전후의 비율을 보이다가 2003년 취업자 감소와 함께 27.7%로 하락함. 이후 취업자 증가와 함께 상승하지만 2007년 이후 취업자에 비해 높은 인구 증가로 인해 2010년 26.3%까지 하락함.



<그림 1>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 60세 이상 여성노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문제

- 2009년 60세 이상 여성노인 중 70.9%는 '건강문제' 로 어려워하고 있고, 동시에 61.3%는 '경제적인 어려움' 을 경험하고 있음.
- 이외 여성 노인으로서 겪는 어려운 문제를 보면, '외로움, 소외감' 19.8%, '소일거리 없음' 14.5%, '노인복지시설 부족' 12.0%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남성 노인의 경우 '건강문제' 와 '경제적인 어려움' , 그리고 '외로움, 소외감' 은 각각 62.6%, 60.0%, 13.2%로 여성 노인에 비해 낮지만, '소일거리 없음' (18.1%), '사회에서의 경로의식 약화' (10.7%)에서는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2009)

(단위 : %)

성별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소일거리 없음	건강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으로부터의 푸대접	사회에서의 경로의식 약화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	노인복지 시설 부족	기타
전체	60.7	10.6	16.1	67.4	17.0	1.1	7.6	4.9	12.4	1.5
여성	61.3	7.7	14.5	70.9	19.8	0.9	5.2	6.4	12.0	1.3
남성	60.0	14.5	18.1	62.6	13.2	1.3	10.7	2.9	12.9	1.6

주 : 1) 복수응답, 2) 60세 이상 인구.
 자료 : 통계청(2009), 「사회조사」.

□ 노후준비 방법

○ 여성노인의 37.1%만이 노후준비

- 60세 이상 여성인구의 37.1%만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음. 노후준비방법은 예금·적금, 저축성 보험이 55.7%로 가장 높고, 국민연금(34.9%), 사적연금(25.5%), 부동산운용(20.9%) 순으로 나타남.
- 60세 이상 남성인구는 59.4%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어, 여성인구에 비해 노후준비 비율이 22.3%p 더 높음. 노후준비는 여성과 동일하게 예금·적금, 저축성 보험이 49.1%로 가장 높으나, 국민연금이 47.8%로 여성에 비해 12.9%p 높고, 사적연금은 여성보다 낮은 대신 기타 공적연금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표 6>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 방법(2009)

(단위 : %)

성별	준비함	준비방법								준비 하고 있지 않음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금	예금·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등	기타	
계	46.7	42.0	11.1	23.6	7.0	52.1	20.3	1.8	1.6	53.3
여성	37.1	34.9	9.9	25.5	5.0	55.7	20.9	1.8	1.8	62.9
남성	59.4	47.8	12.1	22.1	8.7	49.1	19.7	1.8	1.4	40.6

주 : 복수응답

자료 : 통계청(2009), 「사회조사」.

□ 연금 수령 경험

○ 55세 이상 여성 중 42.4%가 연금 수령 경험자

- 55세 이상 여성 중 지난 1년간 개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의 연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42.4%로 나타남.
- 연령별로 55~59세가 6.2%로 낮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시점인 65~69세부터 크게 높아져 75~79세 여성은 77.7%가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여성은 남성과 달리 75세 이후에도 높아지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의 확대와 더불어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을 받는 여성이 증가하기 때문임.
- 55세 이상 남성 중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 경험이 있는 남성은 52.6%로 여성에 비해 10.2%p 높음. 연령별로 기초노령연금과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69세가 82.7%로 가장 높고, 이후 연령부터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한 경험(2011)

(단위: %, %p)

연령계층	전체	여성	남성	남녀차이
계(55~79세)	47.2	42.4	52.6	10.2
55~59세	7.6	6.2	9.0	2.8
60~64세	42.2	25.6	59.5	33.9
65~69세	72.4	63.6	82.7	19.1
70~74세	77.0	72.9	82.4	9.5
75~79세	77.8	77.7	77.9	0.2

주 : 1) 5월 통계, 2) 연금은 개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을 말함.
 자료 : 통계청(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국민연금

○ 2010년 여성의 연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2,168천원으로 남성의 64.4%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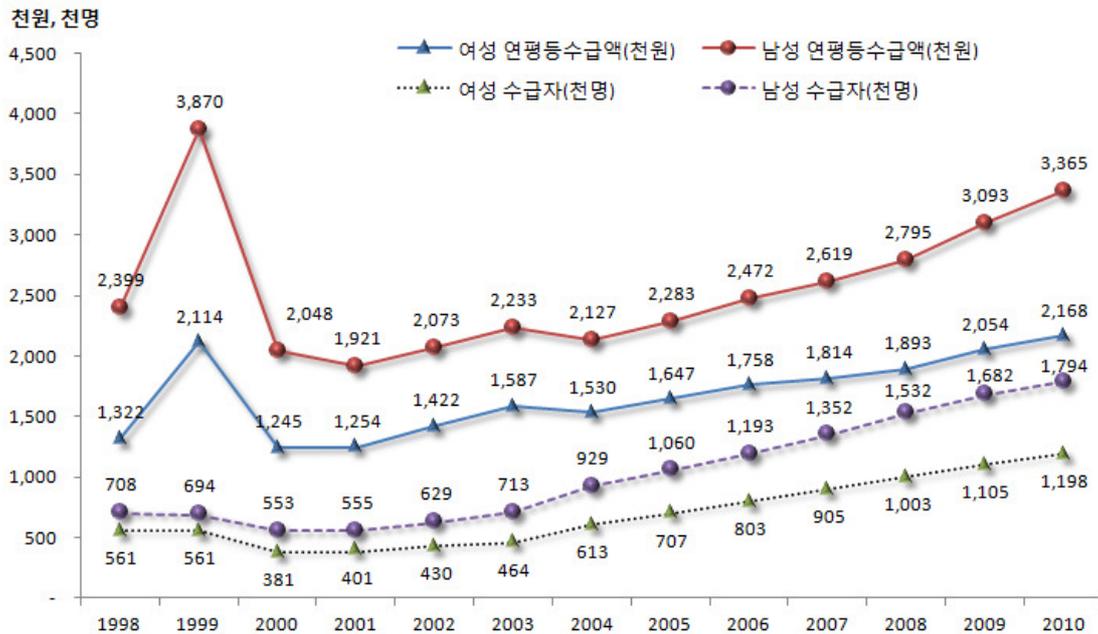
-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직장가입자(근로자 10인 이상)부터 시작하여 1995년 7월 군지역가입자(농어민)로, 그리고 1999년 도시자영업자까지 확대하면서 전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10년 국민연금 수급자 중 여성은 1,198천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40%를 차지함. 국민연금 수급자 중 여성비율은 1998년 44.2%에서 2005년 40.0%로 낮아진 후 여성비율의 변화는 거의 없음.
- 수급자 대비 연금수급액을 보면, 여성의 경우 반환일시금이 많았던 1999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래 점차 증가하여, 2010년 노령연금 등 모든 연금의 연평균 개인수급액 평균은 2,168천원임.
- 남성의 경우 연평균 개인수급액은 3,365천원으로 여성보다 연평균 1,197천원 많음.
- 수급자의 성별차이는 2001년 이래 증가추이를 보임. 성별 수급자 차이는 2004년 316천명을 넘어서, 2007년 447천명, 2010년 596천명으로 성별차이가 점차 증가되고 있음.
- 성별 연평균 개인 수급액의 성비를 보면, 1998년 여성은 남성 대비 55.1%를 받지만,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05년 72.1%까지 상승함. 하지만 이후 하락하여 2010년 여성의 연평균 개인 수급액은 남성대비 64.4%로 떨어짐. 연평균 연금수령액에서 성별차이는 2004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8> 국민연금 수급자수 및 수급액

(단위 : 천명, 백만원, 천원)

연도	수급자수				연금지급액		연평균 개인수급액			
	여성	남성	성별차이	여성비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성별차이	성비
1998	561	708	147	44.2	741,419	1,698,309	1,322	2,399	1,077	55.1
1999	561	694	133	44.7	1,186,014	2,685,956	2,114	3,870	1,756	54.6
2000	381	553	172	40.8	474,257	1,132,778	1,245	2,048	804	60.8
2001	401	555	154	41.9	502,951	1,066,306	1,254	1,921	667	65.3
2002	430	629	199	40.6	611,288	1,303,967	1,422	2,073	651	68.6
2003	464	713	249	39.4	736,335	1,592,114	1,587	2,233	646	71.1
2004	613	929	316	39.8	938,193	1,975,821	1,530	2,127	596	71.9
2005	707	1,060	353	40.0	1,164,754	2,420,146	1,647	2,283	636	72.1
2006	803	1,193	390	40.2	1,411,690	2,948,549	1,758	2,472	714	71.1
2007	905	1,352	447	40.1	1,642,093	3,540,518	1,814	2,619	804	69.3
2008	1,003	1,532	529	39.6	1,898,460	4,282,344	1,893	2,795	902	67.7
2009	1,105	1,682	577	39.6	2,270,055	5,201,879	2,054	3,093	1,038	66.4
2010	1,198	1,794	596	40.0	2,597,780	6,037,687	2,168	3,365	1,197	64.4

주 : 노령연금, 장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포함
 자료 : 국민연금공단(각년도), 「국민연금통계연보」



<그림 2> 국민연금 수급자 및 연평균수급액 추이

○ 한국여성의 연평균 연금수급액, OECD 회원국 중 24위

- 한국 여성의 연금수령 시작 연령은 60세이며, 기대되는 연금수급 총 년수는 25.2년임. 한국의 연금수령 시작 연령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2년 빠름. 이에 연금수급 총 년수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 2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OECD 회원국 중 연금수령 시작연령은 터키 여성이 41.0세로 가장 빠르며, 아이슬란드 및 노르웨이 여성이 67세로 가장 늦음.

<표 9> OECD 회원국의 연평균 연금수급액 추정(2008)

(단위 : 세, 년, US\$, 순위)

국가	연금수령 시작연령		연금 수급 총 년수		평생 받는 연금 총액(US\$)		연평균 연금 수급액(US\$)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한국	60.0	60.0	25.2	20.2	280,000	231,000	11,131(24위)	11,427(24위)
호주	62.0	65.0	24.3	18.6	524,000	479,000	21,574(14위)	25,768(12위)
오스트리아	60.0	65.0	25.1	17.5	608,000	557,000	24,220(20위)	31,823(7위)
벨기에	60.0	60.0	25.8	21.1	476,000	407,000	18,460(17위)	19,251(17위)
캐나다	65.0	65.0	21.4	18.3	394,000	350,000	18,427(18위)	19,131(19위)
체코	58.7	61.0	23.8	17.0	175,000	145,000	7,351(26위)	8,538(26위)
덴마크	65.0	65.0	19.8	16.4	1,106,000	937,000	55,816(3위)	57,284(3위)
핀란드	65.0	65.0	21.0	16.8	632,000	529,000	30,124(7위)	31,471(8위)
프랑스	60.5	60.5	26.5	21.7	501,000	444,000	18,910(15위)	20,436(15위)
독일	65.0	65.0	20.7	17.0	563,000	466,000	27,164(9위)	27,405(10위)
그리스	57.0	57.0	27.1	24.0	609,000	528,000	22,450(13위)	22,009(14위)
헝가리	59.0	60.0	22.6	16.5	180,000	144,000	7,973(25위)	8,750(25위)
아이슬란드	67.0	67.0	19.2	16.8	1,008,000	897,000	52,454(4위)	53,549(4위)
아일랜드	65.0	65.0	20.6	16.9	544,000	448,000	26,376(10위)	26,499(11위)
이탈리아	59.0	59.0	27.4	22.8	427,000	408,000	15,606(20위)	17,874(20위)
일본	65.0	65.0	24.1	18.8	368,000	305,000	15,255(21위)	16,211(21위)
룩셈부르크	60.0	60.0	24.9	20.8	1,789,000	1,542,000	71,899(1위)	73,971(1위)
멕시코	65.0	65.0	19.4	17.2	55,000	50,000	2,828(30위)	2,902(30위)
네덜란드	65.0	65.0	20.4	17.3	1,311,000	1,145,000	64,321(29위)	66,365(29위)
뉴질랜드	65.0	65.0	20.9	18.1	393,000	347,000	18,824(16위)	19,218(18위)
노르웨이	67.0	67.0	18.9	15.7	865,000	732,000	45,721(5위)	46,571(5위)
폴란드	60.0	65.0	23.1	14.4	133,000	119,000	5,768(27위)	8,270(27위)
포르투갈	65.0	65.0	20.2	16.3	235,000	205,000	11,618(23위)	12,613(23위)
슬로바키아	57.0	62.0	24.9	14.9	101,000	82,000	4,049(29위)	5,497(28위)
스페인	65.0	65.0	21.8	17.9	513,000	455,000	23,479(12위)	25,350(13위)
스웨덴	65.0	65.0	21.1	17.9	625,000	556,000	29,642(8위)	31,075(9위)
스위스	63.0	65.0	24.1	18.9	818,000	715,000	33,945(6위)	37,779(6위)
터키	41.0	44.9	36.9	31.1	170,000	142,000	4,603(28위)	4,570(29위)
영국	60.0	65.0	24.5	16.9	394,000	332,000	16,060(19위)	19,589(16위)
미국	66.0	66.0	19.3	16.8	294,000	254,000	15,238(22위)	15,152(22위)
OECD 평균	62.0	63.2	23.2	18.5	504,000	436,000	21,752	23,585

주 : 1)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국가는 제외됨. 2) ()는 수급액 순위

자료 :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 한국여성 연금의 연평균 추정수급액은 11,131US\$로 추정되며, 이는 OECD 회원국²⁾ 중 24위로 나타남. 한국남성은 연평균 추정수급액은 11,427US\$로 여성과 동일한 24위임.
- OECD 회원국 중, 여성의 연간 연금수급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연간 71,899US\$의 연금을 받고 있음. 룩셈부르크의 연금수령 시작연령은 한국과 동일하게 60세이고, 수령 총 년수도 한국과 비슷하나 연간 연금수급액은 6.5배 정도 높게 나타남.

□ 노인인구의 빈곤율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여성 빈곤율은 47.2%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 고령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인구의 소득 보장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가처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인 빈곤 비율로 빈곤율을 정의(상대 빈곤 개념) 할 때, 한국 여성 노인인구의 빈곤율은 47.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이는 OECD 회원국 여성의 평균(15.2%)에 비해 32.0%p 높은 수준임.
- 또한 이와 같은 여성노인 빈곤율은 한국 전체인구 중 빈곤자의 비율이 14.6%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
- 노인 빈곤율은 연령별로 75세 이상에서 49.8%로 높고, 가구종류별로 1인가구에서 76.6%가 빈곤노인가구로 나타남.
- OECD 회원국 중,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0.9%)이며, 체코(2.9%), 아이슬란드(4.3%), 룩셈부르크(2.4%), 네덜란드(2.4%) 등에서 여성노인 빈곤율이 5% 미만으로 나타남. 체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여성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는 대부분 연간 연금수급이 높은 국가로 나타남.
- 한국 노인 남성의 빈곤율은 여성보다 낮으나, 41.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임. 회원국 중 체코가 1.4%로 가장 낮고, 헝가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등이 2% 이하로 매우 낮음.

2)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국가는 제외됨

<표 10>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인구 중 빈곤인구 비율(200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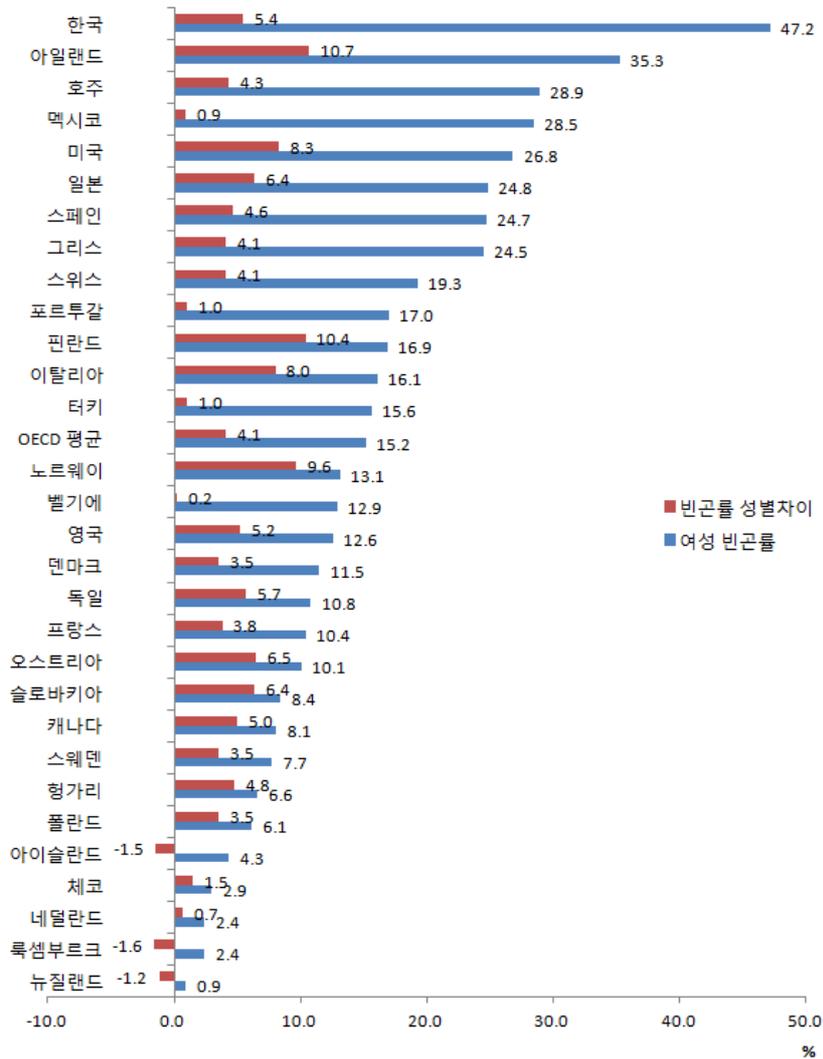
국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전체인구 (모든연령)
	연령별			성별			가구종류		
	65세 이상	66-75	75세 이상	여성	남성	성별차이	1인 가구	부부가구	
한국	45.1	43.3	49.8	47.2	41.8	5.4	76.6	40.8	14.6
호주	26.9	26.1	28.3	28.9	24.6	4.3	49.9	17.7	12.4
오스트리아	7.5	5.3	10.2	10.1	3.6	6.5	16.4	3.9	6.6
벨기에	12.8	10.5	16.0	12.9	12.7	0.2	16.7	10.0	8.8
캐나다	5.9	5.2	6.8	8.1	3.1	5.0	16.2	3.9	12.0
체코	2.3	2.0	2.6	2.9	1.4	1.5	5.6	2.0	5.8
덴마크	10.0	6.9	13.7	11.5	8.0	3.5	17.5	3.8	5.3
핀란드	12.7	8.2	19.5	16.9	6.5	10.4	28.0	3.9	7.3
프랑스	8.8	7.2	10.6	10.4	6.6	3.8	16.2	4.1	7.1
독일	8.4	6.5	11.1	10.8	5.1	5.7	15.0	4.7	11.0
그리스	22.7	19.2	27.8	24.5	20.4	4.1	34.2	17.6	12.6
헝가리	4.6	4.2	5.5	6.6	1.8	4.8	11.1	0.8	7.1
아이슬란드	5.0	5.0	5.0	4.3	5.8	-1.5	9.8	2.3	7.1
아일랜드	30.6	25.8	37.1	35.3	24.6	10.7	65.4	9.4	14.8
이탈리아	12.8	11.2	15.2	16.1	8.1	8.0	25.0	9.4	11.4
일본	22.0	19.4	25.4	24.8	18.4	6.4	47.7	16.6	14.9
룩셈부르크	3.1	3.4	2.6	2.4	4.0	-1.6	3.6	2.9	8.1
멕시코	28.0	26.3	31.2	28.5	27.6	0.9	44.9	20.9	18.4
네덜란드	2.1	2.2	2.0	2.4	1.7	0.7	2.6	2.3	7.7
뉴질랜드	1.5	1.6	1.4	0.9	2.1	-1.2	3.2	1.1	10.8
노르웨이	9.1	3.8	14.6	13.1	3.5	9.6	20.0	1.2	6.8
폴란드	4.8	5.4	3.8	6.1	2.6	3.5	6.0	5.9	14.6
포르투갈	16.6	14.4	19.9	17.0	16.0	1.0	35.0	15.7	12.9
슬로바키아	5.9	3.2	10.6	8.4	2.0	6.4	10.4	2.9	8.1
스페인	22.8	20.0	26.4	24.7	20.1	4.6	38.6	24.2	14.1
스웨덴	6.2	3.4	9.8	7.7	4.2	3.5	13.0	1.1	5.3
스위스	17.6	16.6	19.3	19.3	15.2	4.1	24.3	14.6	8.7
터키	15.1	14.9	15.6	15.6	14.6	1.0	37.8	17.3	17.5
영국	10.3	8.5	12.6	12.6	7.4	5.2	17.5	6.7	8.3
미국	22.4	20.0	27.4	26.8	18.5	8.3	41.3	17.3	17.1
OECD 평균	13.5	11.7	16.1	15.2	11.1	4.1	25.0	9.5	10.6

주 : 빈곤인구 비율은 가처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인 소득자 비율을 말함.

자료 :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 한국 노인의 성별 빈곤율 차이는 5.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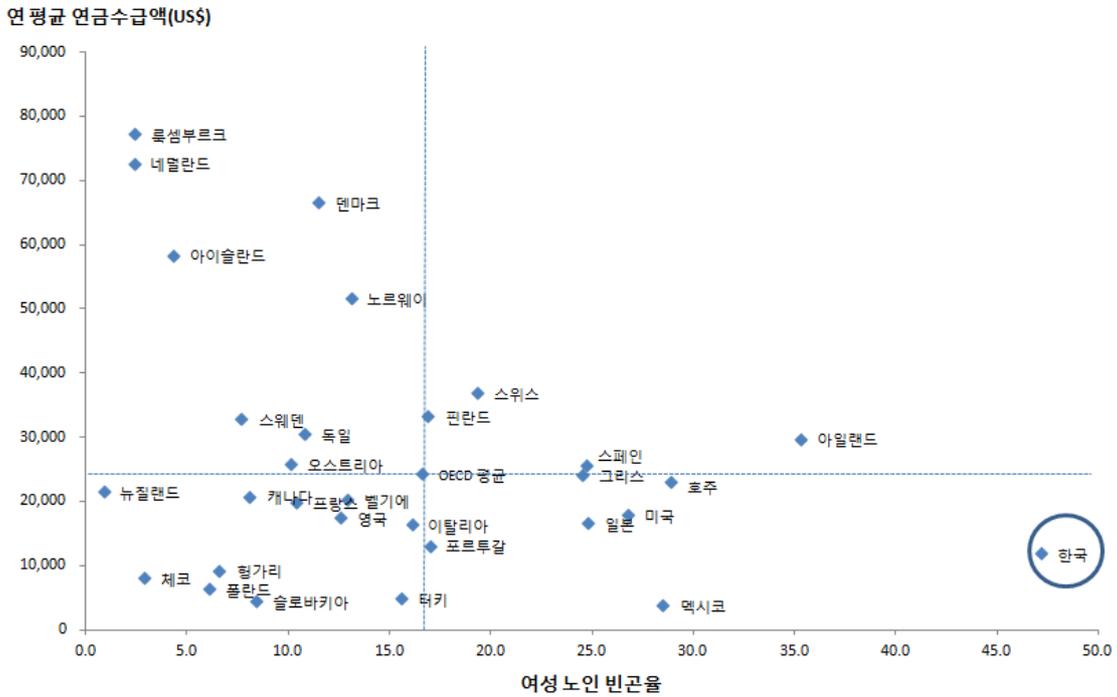
- 한국 노인 빈곤율의 성별격차는 5.4%p로 남녀간 빈곤격차가 큰 국가 군으로 분류됨.
- 한국은 아일랜드, 호주, 미국, 일본, 스페인, 핀란드 등과 더불어 여성노인 빈곤율와 남녀 빈곤율 격차가 모두 높은 국가로 분류됨.
- 한편 멕시코, 포르투갈, 터키의 경우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높으나, 남녀격차는 OECD 회원국 평균 이하인 국가로 나타남.



<그림 3>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여성 노인인구의 빈곤율과 성별차이

○ 한국, 여성노인의 연금수급액은 낮고, 빈곤율은 높은 국가군 중 하나

- 한국 여성노인은 멕시코, 일본, 미국, 포르투갈, 그리스, 호주와 더불어 OECD 회원국 중 연간 연금수급액은 낮고 빈곤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됨.
- 반면 OECD 회원국 중, 연간 연금수급액이 높으면서 빈곤율이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로 나타나며,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핀란드, 그리스 등은 연평균 연금수급액과 빈곤율 모두 OECD 회원국 평균 이상인 국가로 분류됨.
- 한편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터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는 연평균 연금수급액과 여성노인 빈곤율 모두 OECD 회원국 평균 이하인 국가로 나타남.



<그림 4> OECD 회원국의 여성노인빈곤율과 연평균 연금수급액

□ 60세 이상 노인의 여가시간

-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여가 및 교제활동 시간 6시간 26분으로 가장 많아
 - 60세 이상 노인의 여가 및 교제활동 시간은 6시간 26분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고 여성 노인은 6시간 01분, 남성 노인은 7시간 00분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여가 및 교제활동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60세 이상 여성 노인의 여가 및 교제활동 시간은 남성 노인에 비해 59분 적게 나타나 연령별 성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40대 여성은 남성에 비해 12분 적어 연령별 성별 격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 연령별 성별 여가 및 교제활동 시간(2009)

(단위 : 시간:분)

연령별 성별		전체 (여가 및 교제활동)	교제활동	일반인의 학습	미디어 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기타 여가 관련 행동
10대	전체	3:50	0:44	0:02	1:27	0:06	0:02	0:14	1:12	0:01	0:00
	여성	3:34	0:49	0:02	1:32	0:07	0:02	0:07	0:52	0:02	0:01
	남성	4:04	0:40	0:02	1:22	0:05	0:02	0:21	1:31	0:01	0:00
20대	전체	5:03	0:50	0:35	1:59	0:06	0:07	0:19	1:02	0:04	0:01
	여성	4:40	0:52	0:34	1:59	0:07	0:07	0:15	0:38	0:06	0:01
	남성	5:28	0:48	0:36	1:59	0:05	0:06	0:23	1:27	0:02	0:01
30대	전체	4:01	0:42	0:13	1:55	0:07	0:02	0:21	0:39	0:02	0:01
	여성	3:49	0:43	0:12	1:53	0:10	0:03	0:19	0:27	0:03	0:01
	남성	4:13	0:41	0:13	1:57	0:05	0:02	0:24	0:50	0:01	0:01
40대	전체	4:10	0:43	0:05	2:02	0:12	0:01	0:30	0:35	0:01	0:01
	여성	4:04	0:45	0:06	1:58	0:18	0:01	0:27	0:26	0:02	0:01
	남성	4:16	0:41	0:05	2:05	0:06	0:01	0:32	0:45	0:01	0:01
50대	전체	4:47	0:45	0:05	2:24	0:15	0:01	0:40	0:36	0:01	0:01
	여성	4:39	0:48	0:05	2:15	0:24	0:01	0:36	0:28	0:01	0:01
	남성	4:56	0:43	0:04	2:32	0:07	0:00	0:43	0:45	0:00	0:01
60세 이상	전체	6:26	0:54	0:04	3:26	0:22	0:01	0:47	0:52	0:00	0:01
	여성	6:01	0:58	0:04	3:07	0:30	0:01	0:34	0:46	0:00	0:00
	남성	7:00	0:48	0:03	3:51	0:12	0:01	1:05	0:59	0:00	0:01

자료 : 통계청(2009), 생활시간조사.

○ 미디어 이용, 교제활동,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 보내

- 60세 이상 노인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3시간 26분으로 가장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제활동에 54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에 47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임.
- 남성은 미디어 이용,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순으로, 여성은 미디어 이용, 교제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순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미디어 이용,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시간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 연도별 성별 60세 이상의 여가 및 교제활동 시간(1999-2009)

(단위 : 시간:분)

연도별 성별	전체 (여가 및 교제활동)	교제 활동	일반인의 학습	미디어 이용	종교 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기타 여가 관련 행동	
1999	전체	6:34	1:10	0:01	3:20	0:17	0:02	0:32	1:13	0:01	0:00
	여성	6:05	1:11	0:01	2:58	0:24	0:02	0:22	1:06	0:01	0:00
	남성	7:12	1:08	0:01	3:48	0:07	0:01	0:45	1:21	0:01	0:01
2004	전체	6:37	1:04	0:02	3:27	0:19	0:01	0:41	1:02	0:01	0:00
	여성	6:14	1:08	0:01	3:08	0:28	0:01	0:31	0:56	0:01	0:00
	남성	7:10	0:59	0:02	3:54	0:07	0:01	0:55	1:11	0:01	0:01
2009	전체	6:26	0:54	0:04	3:26	0:22	0:01	0:47	0:52	0:00	0:01
	여성	6:01	0:58	0:04	3:07	0:30	0:01	0:34	0:46	0:00	0:00
	남성	7:00	0:48	0:03	3:51	0:12	0:01	1:05	0:59	0:00	0:01

자료 : 통계청(2009), 생활시간조사.

○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시간이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크게 늘어난 여가 활동

- 60세 이상 노인의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시간은 1999년 32분, 2004년 41분에서 2009년 47분으로 1999년에 비해 15분 늘어나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가장 크게 늘어난 여가시간으로 나타남.
- 특히, 60세 이상 남성 노인의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시간은 1999년 45분에서 2009년 1시간 05분으로 20분 늘어나 2009년 34분인 여성 노인의 스포츠 및 레저활동 시간에 비해 31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시간과 교제활동 시간은 지난 10년 간 각각 21분, 16분 줄어들어

- 60세 이상 노인의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시간은 1999년 1시간 13분에서 2009년 52분으로 21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교제활동 시간은 1999년 1시간 10분에서 2009년 54분으로 16분 줄어 듦.
- 지난 10년 동안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시간은 60세 이상 남성 노인이 22분, 60세 이상 여성 노인이 20분 줄어들었으며 교제활동 시간은 60세 이상 남성 노인이 20분, 60세 이상 여성 노인이 13분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남.